

거리두기 대폭 완화 일상회복 한걸음 더

광주·전남, 사적 모임 10명 가능...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연장

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가능 체육시설 샤워장 운영 재개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도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희생에 힘입어 코로나19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사·도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면서도, 식당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도 가을 축제 시즌에 맞춰 그동안 미뤄 왔던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사·도는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정부 방침에 따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사적 모임은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또 집합행사는 백신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된다. 식당, 카페 운영 시간은 기존 밤 10시부터 2시간이 연장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의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은 기존처럼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운영난이 심각한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정부가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고 사실상 강제조치함에 따라 완화계획을 취소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골프장 등 체육시설에서 샤워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조치와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도 해제했다.

광주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주일간(8~14일) 하루 평균 12.7명으로, 한달 전(평균 33.6명)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백신접종 완료율도 전체 시민 대비 61.9%(1차 접종률 77%)로,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1주일(8~14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12.7명으로, 한 달 전(33.6명)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4명 뿐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긴장감 완화가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서는 2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지난 15일 24명, 지난 16일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17일 오후 2시 현재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17일 오후 1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70.2%, 1차 접종률은 81.2%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핑크빛 물든 심진강기차마을 매서운 바람이 불며 한겨울 날씨를 방불케 한 17일, 두터운 겨울 옷을 꺼내입고 곡성 심진강기차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진분홍빛의 코키아(땀파리) 군락지를 산책하며 깊어진 가을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발포명령 조사 진전 있다”

송선태 진상규명위원장 국감 증언 ... 내년까지 비공개 法 논란
“사망자 숫자 수정 불가피 ... 암매장 장소·숫자 구체 증언 있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발포 명령과 관련한 중요한 조사 내용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15일 “그간 진상 조사에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사 진전 상황에 관한 질문에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급장교나 발포를 직접 행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의 조사가 충실히 돼 증거가 쌓이고 있다”면서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제, 참여자, 회의내용을 점점 확인해 들어가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1995-1996년 검찰 수사 당시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저희는 정황 증거나 기타 서류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면서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바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

정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현재 확보된 유골과 행방불명 신청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하면서 다소간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사안 자체가 매우 진전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의결 전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으나 물음에는 “협조는 매우 원만하다”면서도 “40년간 침묵하고 부정하고 왜곡했던 분들의 입과 가슴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사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아울러 5·18조사위의 1차 대면조사 대상인 신군부 주요인물 5명 중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영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면서 나머지 4명은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4명은 당시 직책으로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 참모차장 황영사다.

송 위원장은 “코마(의식불명)가 아닌 한, 역사와

국민 앞에 남길 근거는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사 거부시 동행명령장 발부나 이후 검찰 수사 의뢰, 최후적으로 국회의 특검 임명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의 대국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말로 예상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5·18 진상조사 완결 및 최종 결과 보고 이전에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총 의원은 “진상 규명이 무엇이 된 것이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도 발표 시기와 내용에 관한 법 규정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5·18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표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법 개정 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갑자기 ‘겨울’

광주·전남 아침 5도이하 추위
내륙·산지 얼음...내일 5mm 비

광주와 전남지역에 몰아닥친 강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발표됐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이번 주에도 광주·전남은 일 최고기온 20도 미만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18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섭씨 5도 이하가 되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한파주의보는 지난 16일 밤 9시경

해제됐지만 이번 주 낮 최고기온은 20도 미만에 머무를겠다”고 밝혔다.

18일 광주와 전남지역 일 최저기온은 0-8도, 최고기온은 17-19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19일 최저기온은 5-12도, 최고기온은 15-18도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18일까지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9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최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